

# 증여세 취소후 양도세 재산정 부과...1심 “기한 지나 위법”

### 판결·조정 거쳐 증여세 취소...소취하 종결 재산정 거쳐 양도세 재부과...“부당” 소송 1심 “조정, 판결 아냐...특례 안돼” 원고승

조정을 거쳐 취소된 국세에 대해 세무당국이 재산정을 거쳐 다시 부과했다. 법원에서 정한 기한이 지났다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지난 1월2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5년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09년 12월29일 권면총액 8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다. 같은 날 주식회사 E가 이를 전부 취득했고, E사는 그 다음 날 신주인수권을 분리해 주식회사 F에 매도했다.

A씨는 같은 날 F사로부터 권면총액 40억

원의 신주인수권을 1억6000만 원에 인수했다. 그는 2012년에 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B사 주식 517만4640주를 취득했고, 같은 해 해당 주식을 팔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186억여원의 증여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고 2013년 79억여원의 증여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세무당국은 이 신고 내역이 적정하다고 통지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조정을 통해 해당 처분이 취소됐다. A씨는 최종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

소송이 종료된 이후 세무당국은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됐으므로 과세표준·세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2020년

1월 A씨에 대해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9억여원을 부과했다. A씨는 불복해 이번 소송을 냈다.

A씨는 세무당국의 양도소득세 재부과는 앞선 처분과는 세목 등 과세단위, 기초적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 세무당국이 이미 5년이 더 지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020년에 부과해 위법하다고 했다.

반면 세무당국은 국제기본법에서 인정하는 특례적 사유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국제기본법은 기한이 지났더라도 관련 판결이 확정된 후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

정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앞서 진행된 소송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등을 거치긴 했으나 A씨가 소송을 취하하며 재판이 종료된 것이므로 선행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확정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조세항고 소송에서 이뤄지는 조정권고는 법률상 조정이 아닌 사실상 조정에 불과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를 볼 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제기본법상 특례적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기한이 지난 처분이라고 보고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이슬기자



등대와 벚꽃 20일 오후 경남 남해군 설천면 인근 바닷가 벚꽃이 활짝 꽃망울을 터뜨려 눈길을 끌고 있다.

## 경찰 “JMS 추가 피해자 1차 조사 끝”

### “JMS 조력자도 필요할 경우 추가 입건”

외국인 여성 신도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받고 있는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씨의 추가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교회 내 조력자가 있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20일 정례 간담회에서 정씨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 신고를 접수한 피해자 3명을 상대로 1차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충남경찰청에 한국 여성 신도 총 3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아울러 경찰 관계자는 “추가 입건자에 관련해서도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검토 중”이라며 “조력자와 관련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JMS의 이른바 ‘2인자’로 알려진 조력자 정모씨 등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점 여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J언니’로 알려진 2인자 정모씨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 방영된 뒤 “여자들이 선생님(정명석) 옆 3m 반경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피해자들은 정씨도 공범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JMS 정명석과 조력자들을 범죄단체로 보고 수사할 수 있는지는 질문에는 “지금 상황에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조력자도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추가로 입건할 것”이라고 했다.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수련원 등지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8)씨를 총 17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7월부터 5개월 동안 같은 수련원 등에서 호주 국적 여신도인 B(30)씨를 5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가 신도들에게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세뇌, 자신의 말과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과거에도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에 출소했다.

김재환기자

## 경찰 폭행한 30대, 마약 투약 의혹까지

### 업무 방해한 혐의 및 자택 압수수색 영장 신청

경찰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

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께 광산구 광주중정역에서 ‘횡설수설하는 남성을 말려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위의 얼굴을 때린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현행범 체포 이후 진행된 마약류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검사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또 A씨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임형택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